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다룬 재일한인분야 연구동향 분석*

정영미**
yomjung@deu.ac.kr

이경규***
lk5120@deu.ac.kr

<目次>

- | | |
|-------------------------|----------------------|
| 1. 서론 | 4. 분석 결과 |
| 2. 이론적 배경 | 4.1 발행 행태에 대한 기술통계 |
| 2.1 재일한인 디아스포라 개요 및 현황 | 4.2 출현 키워드에 대한 기술통계 |
| 2.2 재일한인 디아스포라 관련 연구 검토 | 4.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
| 3. 연구 설계 및 방법 | 4.4 발행시기별 네트워크 분석 결과 |
| | 5. 결론 및 요약 |

주요어: 디아스포라(diaspora), 재일한인(Korean-Japanese),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지식구조(knowledge structure), 연구동향(research trends)

1. 서론

일제의 한반도 식민 통치와 패전, 그리고 남북 분단의 냉전 시대를 지나오면서 형성된 재일한인¹⁾의 역사는 이제 100년을 넘었다. 그 동안 재일한인에 의한 또는 그들에 관해 생산된 연구 자료나 문헌이 상당하다. 특히 조선장학회, 아리랑문화센터, 민단역사자료관, 또는 재일조선인연구소 등은 재일한인 연구에 관한 많은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재일한인 사회의 정치적 구조적 변화 등에 따라 이들 재일한인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기존 연구들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4914839).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일본어학과 교수, 교신저자

1) 재일한인 이외에도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코리언, 재일동포, 재일교포, 자이니치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민족 전체를 아우른다는 측면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통칭하여 이하 ‘재일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의 체계적인 분석과 정리가 어느 때 보다는도 중요한 상황에 있다. 그런데 이들의 정주와 아이덴티티는 단순히 소수의 민족집단이라는 관점에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서구학계에서 등장한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재일한인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론적 접근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재일한인은 민족, 언어, 종교, 또는 문화 등의 측면에서 국민국가 내의 주류집단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 디아스포라(diaspora)의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일본 디아스포라 연구의 주된 대상은 포스트콜로니얼(post-colonial)²⁾과 마이너리티(minority)³⁾ 등의 주제 영역과도 관련되어 있다. 근대 일본제국의 외부 또는 경계에 위치해 있는 재일한인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과거 식민지 지배를 했던 국가에 잔류하게 된 재일한인들은 정주국 일본에 완전히 정착하여 다수집단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도 언젠가는 귀환할 수 있는 모국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내 아이누족이나 오키나와 주민 등의 다른 소수집단과는 놓인 상황이 다르다. 이런 이유로 재일한인은 이미 일본사회에서 가장 주류사회에 동화된 외국인 집단이면서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상당히 유지하고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 이들 재일한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민족차별에 맞서 싸워야만 했던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주국인 일본 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차별을 받아왔던 이들 재일한인에게 정주국 국민으로의 동화나 귀화를 통한 다양한 권리의 획득은 재일한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다.⁴⁾ 이와 같이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살펴본 재일한인은 생성과 의식의 변형의 과정이 어떤 디아스포라보다 복잡하고 미묘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디아스포라 관련 연구에 대한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동향과 지식구조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재일한인분야 연구 주제가 지니는 가치를 살펴봄과 동시에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다른 재일한인분야 연구의 주제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행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의 디아스포라 관련 논문을 수집하여 기술적인 통계분석을 수행하고 개별 논문의 주제 키워드 출현정보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다른 재일한인분야 기존 연구들에 대한 거시적인 진단임과 동시에 이를 통해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이 분야

2) 포스트콜로니얼은 식민지를 겪고 나서 독립을 한 나라들이 겪는 사회상(친일청산, 식민통치유산 제거 등)의 보편성 범주를 말한다.

3) 민족이나 언어, 종교 등의 면에서 다수파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 소수파 또는 사회적 약자를 일컫는다.

4) 신기영(2016)「디아스포라론과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아인」『일본비평』제14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p.23

연구에 대한 통찰적인 시각을 제공하여 더욱 활발하고 유용한 후속연구를 촉구할 수 있는 기재로써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재일한인 디아스포라 개요 및 현황

디아스포라(diaspora)는 ‘민족의 본토(original country)로부터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의 집단’으로 정의된다.⁵⁾ 디아스포라의 개념은 고대 히브리어 성경에서부터 기원하여, 이후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인에 의해, 기원전 6세기 바빌로니아인에 의해, 기원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유대인을 두고 사용되어왔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앞의 사전적 정의 외에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쫓겨나 흩어져 사는 유대인’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주제명표목표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 ‘디아스포라’의 관련어로 ‘유대인’, ‘유대교’, ‘초국가주의(세계주의)’가 제시되어 있다.

근대를 지나오면서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특정 민족들의 대규모 이주와 이들의 다른 지역에서의 민족 집단들이 형성되면서 이들 모두를 일컫는 개념으로 점차 확장되어왔다. 오늘날 다양한 민족의 디아스포라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의식의 변형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인문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등 다양한 주제 분야의 연구 영역 중 하나가 되었다. 예를 들면 대서양 노예무역에 의한 서아프리카인들의 대규모 이주는 아프리카인 디아스포라를, 19세기 중반부터 1950년대에 발생한 제국주의에 의한 전쟁과 이념은 아시아인 디아스포라를, 19세기 아일랜드 대기근과 종교적 차별 등에 의한 아일랜드인의 대규모 이주는 유럽인 디아스포라를 생성하였다.

한민족의 경우에도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로 한국 국토를 떠나 외국에 이주한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다. 외교부의 재외동포현황 보고서(2017)⁶⁾에 의하면 2016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재외동포(이후 재외한인이라 함)의 규모는 7,430,688명으로 매년 2~3%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증가는 미국, 캐나다로의 이주에 의한 것이고 일본을 포함한 기타 지역에서는 대부분 감소 추세에 있다. 가장 큰 규모의 재외한인은 중국에 있는

5) Cambridge Dictionary homepage. <<https://dictionary.cambridge.org/ko/>>, [cited 2018. 8.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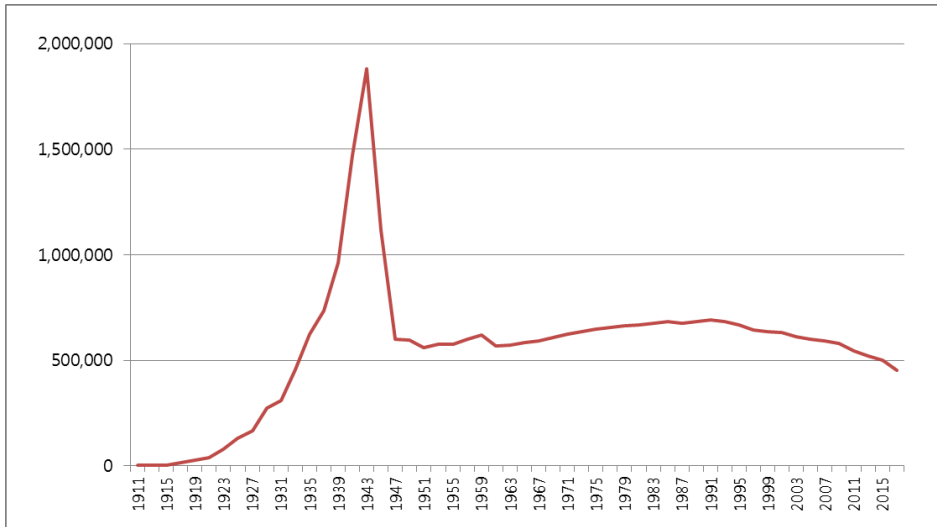
6) 외교부(2017)『재외동포현황 2017』외교부, p.14

2,548,000명이며 다음으로 미국이 2,492,000명, 일본이 819,000명(귀화자 포함)이다. 재일한인은 귀화자를 제외하고도 2016년 12월 기준 453,096명으로 한인 디아스포라의 세 번째의 규모에 해당한다.

재일한인수는 다음의 <그림1>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집단적 강제 징집이 최고조에 달했던 1944년이 1,936,8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의 패전 이후 그 수의 절반보다 많은 약 60만 명이 잔류하여 제1기 재일한인사회를 형성하였다. 이후 이들의 후손인 2, 3세 재일한인이 주축을 이루어 재일한인사회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학업이나 경제적인 이유의 이주민이 추가되었다. 이들은 1세대 재일한인을 의미하는 올드 커머(old comer)와 구분하여 뉴커머(new comer)로 불린다. 최근 재일한인의 수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그 원인으로는 일반국적 취득자 증가 및 고령자 사망으로 인한 영주권자 감소로 파악된다.

<그림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일한인의 형성과 추이는 한국의 뼈아픈 식민지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경제적 이유의 자발적 이주가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재외한인과 달리 다수가 1937~1945년의 일제 식민지 시대의 강제 징집에 의한 것이며 일본의 패전 이후 생계나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남겨진 이들이 오늘날의 재일한인의 근간이 된다. 또한 이들은 일본 내에서 한때 식민지였던 나라의 후손으로 가난과 차별을 이겨내야 했고, 광복 이후 분단된 모국의 복잡한 정치상황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지내야 했다. 재외한인 중 재일한인은 수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이러한 역사적 맥락 때문에 이들이 지니는 무게감은 만만치 않다. 이 점이 본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 국내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재일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클 것이며 기타 디아스포라 연구와 다른 주제적 특징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국내 디아스포라 관련 연구들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다른 재일한인분야 연구들에 대한 연구동향 및 지식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7) 재일본대한민국민단 홈페이지 <<http://www.mindan.org/kr/aboutus.php>>에서 제공하는 통계와 외교부(2017) 『재외동포현황 2017』 외교부, p.15의 내용을 통합하여 그림으로 재구성함



<그림1> 재일한인수(2016년 12월 30일까지)

2.2 재일한인 디아스포라 관련 연구 검토

재일한인 관련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활발히 전개되어 문헌연구나 구술사 연구, 그리고 정량적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다룬 재일한인 관련 연구는 전형권(2007)과 이상봉(2010), 선봉규(2011), 정금희·김영지(2012), 임영언·허성태(2013)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일한인의 이주와 정주, 재영토화, 민족정체성, 초국가주의, 국적, 탈민족화, 탈경계화, 로컬리티, 코리아 타운, 재외동포정책, 재일디아스포라 문학 등 다양한 분야와 주제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⁸⁾. 이들 연구는 재일한인들이 생산한 역사기록물이나 문헌자료를 활용한 문헌연구가 대부분이다. 재일한인이 생산한 자료를 1차 자료로 하여 재일한인의 디아스포라적 존재방식과 정체성

8) 전형권(2007)「일본의 보수화와 재일한인의 국적문제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동학-」『한국동북아논총』 제43권, 한국동북아학회
 이상봉(2010)「디아스포라와 로컬리티 연구 -재일코리안을 보는 새로운 시각」『한일민족문제연구』제18권, 한일민족문제학회
 선봉규(2011)「근·현대 재일한인 디아스포라의 이주와 재영토화 연구 -오사카와 도쿄를 중심으로-」『한국동북아논총』제60권, 한국동북아학회
 정금희·김영지(2012)「초창기 재일한인 작품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성향 연구」『디아스포라연구』제6권 제1호,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임영언·허성태(2013)「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본 북한-총련-일본 관계 연구」『한국동북아논총』제66권, 한국동북아학회

의 변화과정을 밝혀냈으며, 로컬리티의 관점에서 바라본 재일한인 디아스포라 담론, 그리고 재일한인 디아스포라의 시기별 이주 현황과 정착실태, 재영토화 과정과 특징을 밝혀내는 상당한 성과를 도출해냈다. 연구의 일부는 1차 자료 수집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였고 북한, 총련, 그리고 일본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총련을 한민족 디아스포라로서 포용하고 민족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시도하였다. 이것은 디아스포라 연구영역의 확장성과 재외 동포정책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연구들의 축적은 단편적인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단행본 발간으로까지 이어져 윤인진(2004), 장운수(2010), 임채완 외(2012), 조현미 외(2013), 하상일(2013), 김환기 외(2018), 소명선 외(2018) 등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⁹⁾

본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과 달리 재일한인이 생산한 자료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재일한인에 관한 연구성과물들을 대상으로 재일한인 디아스포라 연구동향을 살펴본 것이다.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도 이 분야 대부분의 연구에서 채택한 문헌의 내용분석이 아닌 정량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디아스포라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선행 연구로는 서봉언·이채문(2014)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사회과학분야에서 최근 10년간 발행된 디아스포라 관련 국내 논문 64건을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모든 학문 분야의 디아스포라 연구를 총괄하였다. 주제 범위는 다소 다르지만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재일한인 분야 연구동향을 파악한 정영미·이경규(2018)의 연구도 있다.¹⁰⁾ 따라서 본 연구는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다룬 재일한인분야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통계뿐만 아니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이들 연구와 주제 범위와 방법상에 차이가 있다. 또한 연구자들의 관심 변화와 추이를 살피기 위해 발행년도별 분석을 포함하는 등 이들 연구와는 차별화하였다.

9) 윤인진(2004)『코리안 디아스포라』고려대학교 출판부

장운수(2010)『코리안 디아스포라와 문화 네트워크』북코리아

임채완 외(2012)『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화콘텐츠』북코리아

조현미 외(2012)『일본 가나가와 지역 재일한인의 생활사』책과 세계

하상일(2013)『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역사적 이해』소명출판

김환기 외(2018)『재일디아스포라문학선집(5) 연구』소명출판

소명선 외(2018)『재일조선인 미디어와 전후 문화담론』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0) 서봉언·이채문(2014)「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본 한국의 디아스포라 연구동향」『디아스포라연구』제8권 제1호,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정영미·이경규(2018)「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한 재일한인분야 지식구조 분석」『일본근대학연구』제59집, 한국일본근대학회

3. 연구 설계 및 방법

본 연구는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다룬 재일한인 관련 연구동향 및 지식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국내 학술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KCI: Korea Citation Index, 이후 KCI라고 함)¹¹⁾에서 ‘논문제목’과 ‘키워드’에 디아스포라를 포함하고 있는 학술지 논문 1,367건을 수집하였다. KCI에서 소급 축적한 논문을 포함하여, 연구가 진행된 2018년 8월 30일까지 KCI에 수록된 이 주제 관련 모든 논문이 분석대상이다. 이들 논문에 대한 발행년도, 주제 영역, 발행기관 등의 기본적인 이 주제 관련 논문들의 발행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25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발행년도에 따른 주제 영역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다룬 재일한인분야의 연구동향 및 지식 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키워드 동시출현정보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키워드 추출은 수집된 논문의 저자 키워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였고, 저자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논문의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논문제목을 사용하였다. 키워드 추출을 위한 형태소분석기로는 KkKwic이 사용되었다. 논문을 작성한 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키워드의 표준화 작업은 되도록 지양하였으나 기관명, 인명, 단체명, 사건명과 같은 고유명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제명표목표를 기반으로 통제하였고 ‘아이덴티티’, ‘내셔널리즘’, ‘자이니치’ 등의 분명한 외국어 표기는 ‘정체성’, ‘국가주의’, ‘재일’과 같이 통일하였다. 또한 복합명사가 키워드로 사용된 경우, 빈번하게 사용된 표현방법으로 해당 단어들의 띄어쓰기를 통일하였다.

추출된 키워드 중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핵심 키워드 109개를 선별하였고 이것들의 동시출현정보를 이용하여 상관행렬 표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이 주제 분야에 어떤 주제 키워드가 연구의 중심에 있는지, 특정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들과 관련하여 나타나는지 등을 파악하였으며, 분석도구로는 UCINET 6을 사용하였다. 또한 핵심 키워드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구조를 살펴봄과 동시에 그들 간의 관계를 활용하여 주요 연구 주제의 영역을 구분해보기 위해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로 연구동향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수집된 논문의 발행시기를 기준으로 1998~2006년, 2007~2012년, 그리고 2013~2018년의 세 시기(편의상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각각 제1기, 제2기, 제3기로 명명함)로 구분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KCI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1998년 논문은 1건이고 2002년부터 논문들이 간행되어 1998~2002년 또한 6년간의 발행 논문을 포함하고 있다.

11)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 <<https://www.kci.go.kr/>>, [인용 2018. 8. 30.]

4.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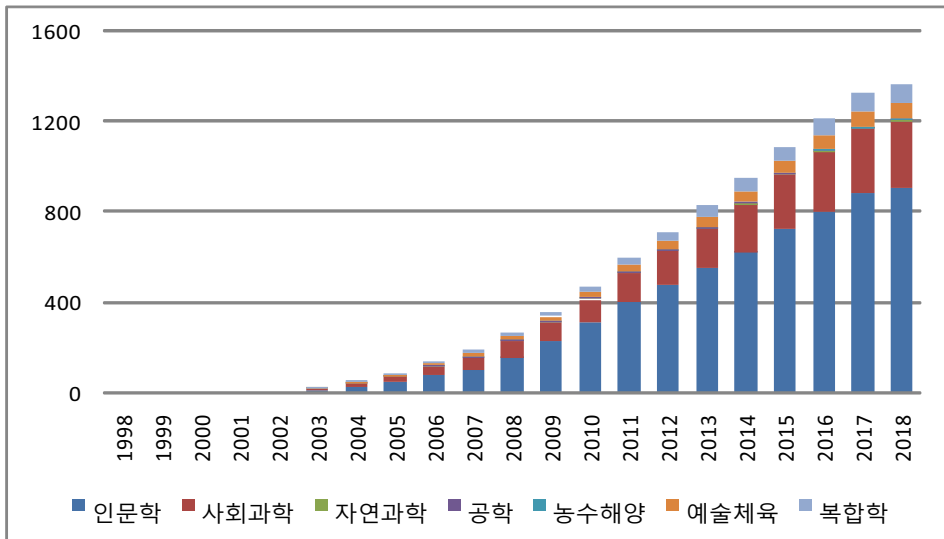
4.1 발행 행태에 대한 기술통계

KCI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디아스포라 관련 논문은 1998년 1건을 시작으로 점차 그 수가 증가하여 2018년 8월 현재까지 총 1,367건이 누적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100건 이상의 논문이 꾸준히 발행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41건으로 단일년도 중 가장 높은 발행건수를 보여, 점차 이 주제 분야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학문 분야는 인문학에서 879건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행하였고, 사회과학 314건, 복합학 84건, 예술체육 70건, 공학 5건, 자연과학 4건, 농수해양 1건의 순으로 인문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디아스포라에 대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접근은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심화되는데 사회과학, 복합학, 예술체육 분야에서 증가세가 눈에 띄며, 자세한 것은 <표1>을 통해 알 수 있다.

<표1> 발행년도*학문분야 교차분석 결과

	인문학	사회과학	복합학	예술체육	공학	자연과학	농수해양	합계
1998	0	0	0	1	0	0	0	1
2002	5	1	0	0	0	0	0	6
2003	8	4	1	0	0	1	0	14
2004	14	10	2	0	1	3	0	30
2005	23	7	1	1	0	0	0	32
2006	27	18	3	2	0	0	0	50
2007	26	14	5	7	0	0	0	52
2008	55	19	3	5	0	0	0	82
2009	70	10	2	4	0	0	0	86
2010	80	23	7	5	0	0	0	115
2011	90	25	4	9	0	0	0	128
2012	72	28	8	7	0	0	0	115
2013	72	27	12	7	0	0	0	118
2014	69	36	8	5	2	0	0	120
2015	99	29	6	5	2	0	0	141
2016	75	30	9	7	0	0	1	122
2017	75	26	11	3	0	0	0	115
2018	19	7	2	2	0	0	0	30
합계	879	314	84	70	5	4	1	1357

누적통계를 통해 이것의 차이를 보다 쉽게 나타내기 위해 도식화해보면 <그림 2>와 같다. 2018년의 발행건수는 KCI 데이터베이스 2018년 8월 30일자 수록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지 않은 더 많은 논문들이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행년도와 학문 분야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Pearson 카이제곱 값=190.9462(자유도 =85), 유의확률 p=0.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발행년도에 따른 학문 분야별 관련 논문의 발행 행태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 디아스포라 논문의 발행년도별 학문 분야(누적)

이들 논문의 세부적인 주제 영역은 한국어와문학이 270건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하였으며, 기타인문학이 149건, 영어와문학이 115건, 사회과학일반이 84건, 학제간연구가 69건, 역사학이 62건, 지역학이 46건, 일본어와문학이 39건, 중국어와문학이 38건, 정치외교학이 34건 등으로 나타났다. 다수가 문학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사회과학일반, 학제간연구, 지역학, 정치외교학 등 사회과학과 복합학 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제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디아스포라 관련 논문 발행기관과 발행 학술지는 한국동북아학회의 『한국동북아논총』이 36회로 가장 많았으며,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의 『디아스포라연구』가 33회,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의 『한국문학이론과비평』이 27회, 한국문학회의 『한국문학논총』이 22회, 한중인문학회의 『한중인문학연구』가 20회를 발행한바 있다. 가장 많은 디아스포라 관련 논문을 발행한

한국동북이론총과 디아스포라연구는 사회과학에 분류되는 학술지이지만, 그 외 상위에 랭크된 대부분의 발행학술지는 인문학에 관한 것이다.

4.2 출현 키워드에 대한 기술통계

KiKwic을 통해 추출된 디아스포라관련 논문의 저자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불용어를 제외하고 총 11,238개의 주제 키워드가 나타났으며 중복 키워드를 제외하면 총 4,470개의 단일 키워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1회 이상 중복해서 출현한 핵심키워드 109개는 <표 2>와 같다.

<표 2> 논문의 저자 키워드에 나타난 출현빈도 상위 키워드

출현 빈도	키워드	출현 빈도	키워드	출현 빈도	키워드	출현 빈도	키워드
1202	디아스포라	26	공간	17	귀환	13	연해주
273	정체성	26	다문화	17	담론	13	윤동주
252	한인	26	만주	17	중국인	13	젠더
144	재일	26	타자	17	포스트	13	화인
122	문학	26	트라우마	16	근대	12	교회
100	민족	24	식민지주의	16	민족적	12	국가주의
99	이주	24	정치	16	시	12	글로벌
69	고려인	23	미국	16	이민자	12	망명
67	조선족	23	세계화	16	적	12	아시아
46	문화	23	식민지	16	중국조선족	12	이방인
45	중국	23	유대인	15	사회	12	이야기
40	민족주의	22	역사	15	소수자	12	이주자
39	러시아	22	의식	15	이주민	12	재외한인
38	고향	21	서사	15	정책	12	재현
38	공동체	21	일본	15	체험	12	적응
38	초국가주의	21	재외동포	15	코리언	12	전쟁
36	여성	20	경계	15	탈북자	12	카자흐스탄
36	영화	20	경계인	14	동화	12	한국어
34	한국	20	소설	14	문화적	11	국민국가
33	탈식민지주의	20	언어	14	상상력	11	북한
32	이민	20	한민족	14	아프리카	11	이데올로기
31	네트워크	20	화교	14	인종	11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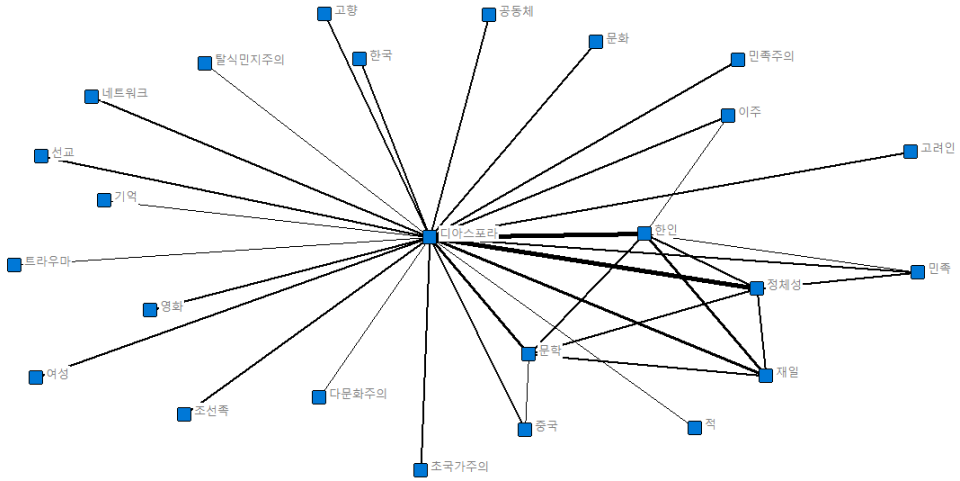
31	다문화주의	19	분단	14	중앙아시아	11	이주노동자
30	기억	18	난민	14	하이브리드	11	일계인
30	선교	18	사할린	14	해외	11	향수
30	혼종성	18	아리랑	13	다문화사회		
27	국가	18	주체	13	시문학		
27	미국인	17	강제이주	13	아시아계		

논문의 주제에 해당하는 디아스포라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나타난 키워드는 ‘정체성’으로 총 273건의 논문에서 사용되었고, ‘한인’은 252건, ‘재일’은 144건, ‘문학’은 122건, ‘민족’은 100건의 논문에서 사용되었으며 그 외 ‘이주’, ‘고려인’, ‘조선족’, ‘문화’ 등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출현빈도를 통해 살펴본 국내 디아스포라 관련 연구들에서 다루고 있는 재외한인은 ‘재일(또는 일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재중(또는 중국, 중국조선족, 만주, 연해주)’, ‘재미(또는 미국)’, ‘재러(또는 러시아)’의 순이었다.

4.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핵심키워드 109개를 대상으로 UCINET 6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키워드들 간에 직접적인 연결(degree)은 총 3,432번(평균 degree=31.486), 연결 중심성은 0.722로 나타나 그렇게 조밀하지도 느슨하지도 않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아스포라 관련 논문들의 네트워크를 보다 쉽게 살펴보기 위해, 주제에 해당하는 디아스포라 노드를 제외하고 관계 40이상의 키워드들만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3>과 같다. ‘디아스포라’와 ‘한인’이 동시에 출현한 논문은 2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디아스포라’와 ‘정체성’이 249건, ‘디아스포라’와 ‘재일’이 152건, ‘한인’과 ‘재일’이 138건, ‘디아스포라’와 ‘문학’이 114건, ‘디아스포라’와 ‘민족’이 84건, ‘디아스포라’와 ‘이주’가 77건, ‘정체성’과 ‘한인’이 63건 등으로 이들 키워드간의 연결정도가 가장 반복적이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디아스포라’는 ‘정체성’, ‘한인’, ‘재일’, ‘문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즉 이러한 키워드들은 디아스포라 연구 분야의 핵심 주제로 논의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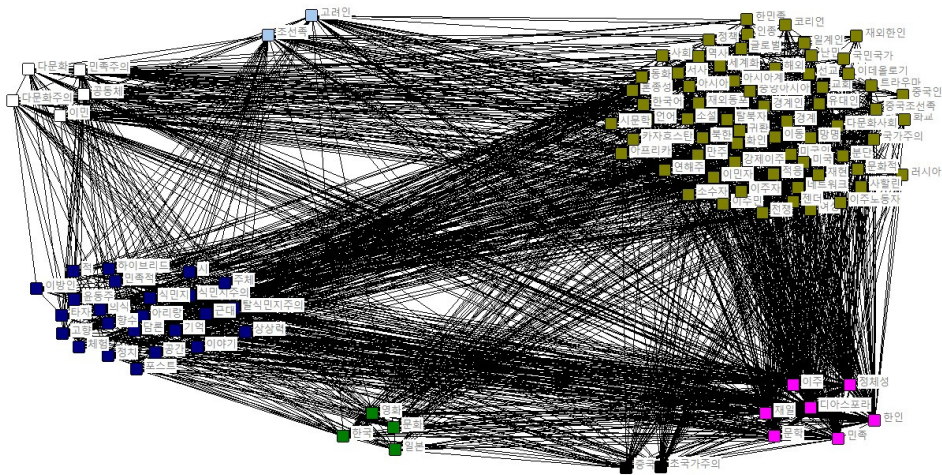
<그림3> 핵심키워드의 지식 지도(degree≥30)

핵심키워드들이 이 주제 분야의 얼마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중앙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앙성에는 연결된 키워드의 수를 통해 중앙성을 파악하는 연결정도 중앙성(degree centrality), 한 키워드의 다른 키워드들간의 인접성(즉, 거리)을 측정하는 인접 중앙성(closeness centrality), 그리고 한 키워드가 다른 키워들 사이의 최단거리를 연결하는 최단 경로 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사이 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3>과 같이 ‘이주’의 출현빈도는 ‘재일’, ‘문화’, ‘민족’과 비교하여 다소 낮으나 다른 키워들간의 관계에서 높은 중앙성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국가주의’는 출현빈도 Top 10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세 유형의 중앙성에서 모두 10번째 순위를 차지하는 이 분야의 중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반면 ‘고려인’은 그 반대의 경우로 출현빈도는 높으나 다른 키워드들간의 관계가 다소 떨어지는 독립적인 주제로 나타났다. 사이 중앙성에서 ‘조선족’과 ‘문화’가 다른 중앙성과 순위가 바뀌어서 나타났으며 ‘조선족’이 ‘문화’보다 다른 키워드들을 연결하는 최단 경로에 위치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3> 중앙성 Top10 키워드

순위	출현빈도	연결정도 중앙성	인접 중앙성	사이 중앙성
1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2	정체성	정체성	정체성	정체성
3	한인	한인	한인	한인
4	재일	이주	이주	이주
5	문화	재일, 민족	재일, 민족	민족
6	민족			재일
7	이주	문화	문화	문화
8	고려인	문화	문화	조선족
9	조선족	조선족	조선족	문화
10	문화	초국가주의	초국가주의	초국가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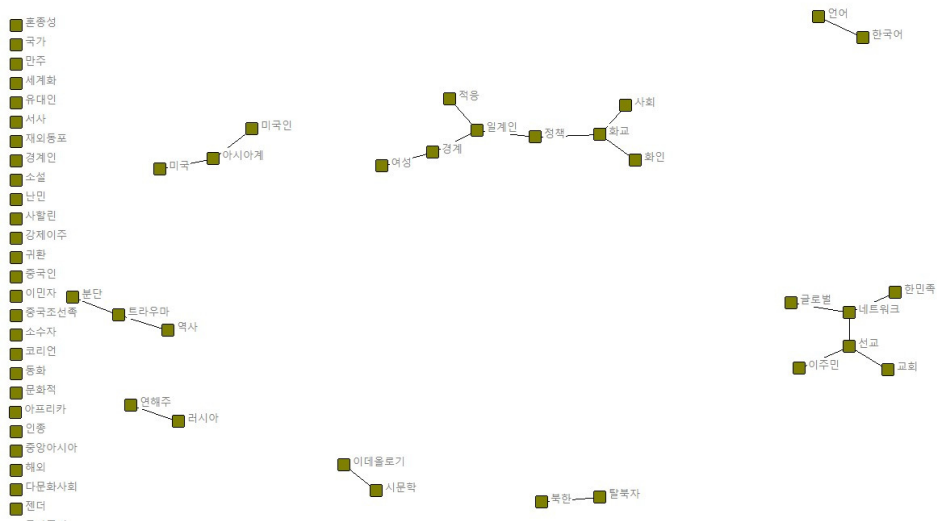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제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키워드간 연결 관계의 유사성에 기반하여 핵심키워드의 클러스터를 형성해보면 다음의 <그림4>와 같다.



<그림4> 주제 영역 범주화: 7개의 클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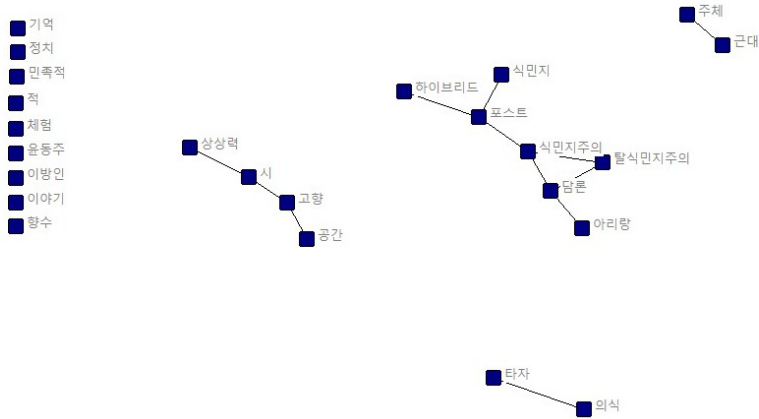
클러스터A는 ‘디아스포라’, ‘민족’, ‘재일’, ‘한인’, ‘이주’, ‘정체성’, ‘문화’으로 포함 키워드 수는 적으나 가장 연결 강도가 강한 클러스터로 나타났으며 재일한인 디아스포라에 주제가

집중되어 있었다. 클러스터B는 ‘고려인’과 ‘조선족’. 클러스터C는 ‘중국’과 ‘초국가주의’, 클러스터D는 ‘다문화주의’, ‘민족주의’, ‘공동체’, ‘다문화’, ‘이민’, 클러스터E는 ‘일본’, ‘한국’, ‘영화’, ‘문화’로 구성되었다. 클러스터F는 65개의 키워드로 구성된 가장 망라적인 주제를 포함하지만 연결 강도는 약한 클러스터 나타났고 다음의 <그림5>와 같다. 연결 강도(degree≥2)를 높이면 다음과 같이 절반 정도의 관계가 사라지고 파편화된 하위 네트워크들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 및 복합학 등 다양한 측면의 디아스포라가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5> 클러스터F의 지식 지도(degree≥2)

마지막 클러스터G에는 24개의 키워드가 포함되었고 ‘시’, ‘담론’, ‘민족적’, ‘공간’, ‘운동주’, ‘식민지주의’, ‘탈식민지주의’, ‘식민지’, ‘타자’, ‘이방인’, ‘하이브리드’, ‘정치’, ‘아리랑’, ‘향수’, ‘기억’, ‘근대’, ‘포스터’, ‘상상력’, ‘이야기’, ‘주체’, ‘의식’, ‘적’으로 구성되었다. 연결 강도를 높이면 다음의 <그림6>과 같은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식민지와 관련된 주제의 하위 네트워크가 가장 큰 구성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6> 클러스터G의 지식 지도(degree≥2)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디아스포라에 대한 매우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접근과 주제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디아스포라 연구에서는 재일한인 관련 문학과 정체성에 관한 주제가 가장 강력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다수의 논문이 이 주제에 몰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4 발행시기별 네트워크 분석 결과

디아스포라 논문들의 시기별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발행시기에 따라 1998과 2002~2006년을 제1기, 2007~2012년을 제2기, 그리고 2013~2018년을 제3기로 구분하여 주제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제1기는 133건, 제2기는 578건, 제3기는 646건의 논문이 발행되어 점차 최근에 올수록 이 분야 논문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행시기별로 논문을 구분하여 KrKwic을 통해 키워드를 추출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출현 키워드 및 단일 키워드의 수는 발행 논문 건수와 비례하여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4> 발행시기별 키워드 추출 결과

	제1기	제2기	제3기
발행 논문(건)	133	578	646
출현 키워드 수(개)	870	4947	5421
단일 키워드 수(개)	372	2307	2636

추출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발행시기별 출현빈도 Top20의 핵심키워드를 정리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키워드 추출 및 출현빈도 Top 20 핵심키워드

제1기		제2기		제3기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디아스포라	63	디아스포라	526	디아스포라	594
한인	13	정체성	136	정체성	117
정체성	12	문학	70	한인	83
고려인	7	한인	57	이주	51
네트워크	6	재일한인	56	문학	47
민족주의	6	민족	49	민족	46
민족적	5	이주	44	재일한인	41
연해주	5	고려인	27	조선족	40
공동체	4	조선족	25	고려인	30
문학	4	민족주의	23	트라우마	23
문화	4	재일	23	중국	22
선교	4	초국가주의	23	문화	20
세계화	4	문화	22	여성	20
소설	4	영화	22	기억	19
이주	4	중국	21	선교	18
중국인	4	공동체	20	이민	18
초국가주의	4	다문화주의	20	한국	18
한민족	4	러시아	19	고향	17
다중적	3	고향	17	탈식민지주의	17
러시아	3	미국인	17	러시아	16

제1기 디아스포라 논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키워드는 디아스포라를 제외하고 ‘한인’이 13회, ‘정체성’이 12회, ‘고려인’이 7회, ‘네트워크’와 ‘민족주의’가 각 6회 등으로 나타났다. 제2기에서는 ‘정체성’이 136회로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고 다음이 ‘문학’, ‘한인’, ‘재일한인’, ‘민족’, ‘이주’ 등의 순으로 전체 이 주제 분야 논문의 출현 키워드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제3기에서도 제2기와 유사하게 ‘정체성’이 117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인’, ‘이주’, ‘문학’, ‘민족’ 등의 순으로 출현빈도를 보였다. 반면 제3기에서는 이전 시기에 보이지

않았던 ‘트라우마’, ‘여성’, ‘기억’, 그리고 ‘탈식민주의’가 상위 출현빈도 Top20에 새로 진입하였다. 이들 주제 키워드는 앞에서 분석한 클러스터F와 클라우드G에 포함된 것으로 새로운 디아스포라 분야의 확장 영역으로 앞으로 주목해야할 연구 주제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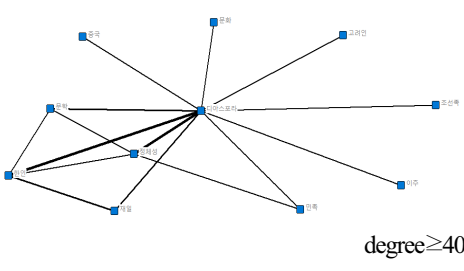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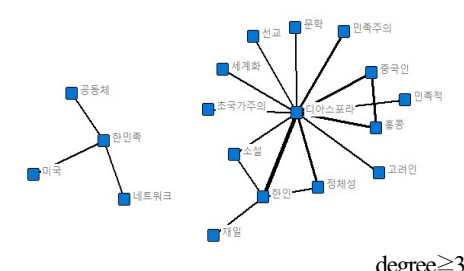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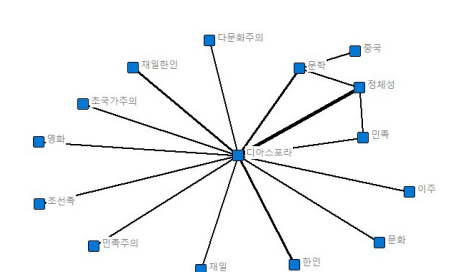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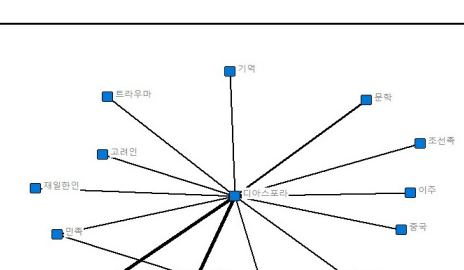
제1기에서 3회 이상 출현한 핵심키워드 33개¹²⁾, 제2기에서는 6회 이상 출현한 핵심키워드 103개, 제3기에서는 6회 이상 출현한 핵심키워드 119개를 대상으로 발행시기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6>과 같은 속성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제1기 생산논문수와 사용된 키워드의 수는 제2기나 제3기와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동일 집단 규모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이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는 다소 무의미하다. 각 발행시기별 네트워크의 속성과 이것이 나타내는 키워드간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1기 디아스포라 관련 연구에서는 연결 정도 3에서도 재일과 디아스포라가 직접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정체성’, ‘중국’, ‘홍콩’, ‘고려인’, ‘세계화’ 등과 ‘디아스포라’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미국’,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의 네트워크도 하위로 나타난다. 제2기와 제3기 디아스포라 연구는 제3기에서 더 많은 논문이 생산되었지만 더 많은 주제 키워드가 사용되어 네트워크의 밀도(Density)¹³⁾와 평균 연결수(Avg. degree)에서 느슨한 네트워크로 분석되었다. 또한 키워드들간의 직접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연결을 포함한 키워드간의 상대적인 거리(Distance)에서도 제3기는 제2기 네트워크보다 더 긴 거리를 나타내어 느슨한 네트워크로 해석되었다. 제2기 디아스포라 연구에서는 ‘정체성’과 가장 강한 연결 정도를 나타냈으며, 그 외에도 ‘재일한인’, ‘한인’, ‘민족’, ‘이주’, ‘문학’ 등과 강한 연결을 보였다. 제3기 디아스포라 연구에서도 제2기 네트워크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정체성’, ‘한인’, ‘문학’, ‘재일한인’, ‘이주’, ‘민족’ 등과 강한 연결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네트워크 규모(Size)로 네트워크 분석시 사용되는 액터(Actor, 또는 노드)를 뜻하며 본 논문에서는 출현빈도가 높은 핵심키워드가 된다.

13) 네트워크의 밀도(Density)는 네트워크에서 노드 간의 전반적인 연결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내의 키워드간 연결이 많을수록 네트워크의 밀도는 높아진다. 네트워크의 크기를 반영하기 위해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최대 가능한 연결수 대비 실제 존재하는 연결의 비율로 측정한다.

<표6> 발행시기별 네트워크 속성

	네트워크 시각화	속성	값
전체	 <p>degree ≥ 40</p>	규모 (출현빈도수)	109 (11회 이상)
		총 연결수	3,432
		평균 연결수	31.486
		연결 중심성값	0.722
		밀도	0.292
		평균 거리 (표준편차 거리)	1.708 (0.454)
제1기	 <p>degree ≥ 3</p>	규모 (출현빈도수)	33 (3회 이상)
		총 연결수	234
		평균 연결수	7.091
		연결 중심성값	0.662
		밀도	0.222
		평균 거리 (표준편차 거리)	1.926 (0.609)
제2기	 <p>degree ≥ 20</p>	규모 (출현빈도수)	103 (6회 이상)
		총 연결수	2,222
		평균 연결수	21.573
		연결 중심성값	0.804
		밀도	0.211
		평균 거리 (표준편차 거리)	0.609 (1.787)
제3기	 <p>degree ≥ 20</p>	규모 (출현빈도수)	119 (6회 이상)
		총 연결수	2,282
		평균 연결수	19.176
		연결 중심성값	0.852
		밀도	0.163
		평균 거리 (표준편차 거리)	1.837 (0.369)

다양한 유형의 중앙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7>에서와 같이 발행시기별 모두에서 공통적인 키워드는 ‘디아스포라’, ‘한인’, ‘정체성’이다. 반면 제1기에 Top10에 포함되었던 ‘네트워크’, ‘민족적’, ‘우즈베키스탄’, ‘소설’은 제2기와 제3기 연구의 Top10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2기의 Top10에 포함되었던 ‘초국가주의’, ‘문화’, ‘민족주의’는 제3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제3기 연구에서 Top10에 새롭게 포함된 키워드는 ‘조선족’, ‘기억’, ‘고려인’이고 제2기 연구와 비교하여 ‘재일한인’과 ‘문화’는 다소 중앙성이 떨어졌으나 ‘이주’와 ‘민족’은 더 높은 중앙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인 디아스포라 정체성에 관한 연구들에서 문화, 민족주의와 같은 거시적인 논의보다 기억, 트라우마와 같은 개인과 관련된 미시적인 논의의 연구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1기의 미국, 우즈베키스탄의 한인 등의 주제에서 제2기는 재일한인 디아스포라를 상당부분 다루었다면 최근에는 재일한인과 더불어 조선족, 고려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7> 발행시기별 중앙성 Top10 키워드

발행시기	순위	연결정도 중앙성	인접 중앙성	사이 중앙성
제1기	1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2	한인, 정체성	한인	한인
	3		정체성	정체성
	4	민족적	민족적, 소설	네트워크
	5	초국가주의, 소설		우즈베키스탄
	6		초국가주의	문화
	7	네트워크	고려인, 네트워크	민족적
	8	고려인		고려인
	9	우즈베키스탄, 연해주	우즈베키스탄	초국가주의
	10		민족주의	미국
제2기	1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2	정체성	정체성	정체성
	3	한인	한인	한인
	4	문화, 재일한인	문화, 재일한인	재일한인
	5			민족
	6	민족	민족	문화
	7	이주	이주	이주
	8	문화	문화	문화
	9	초국가주의	초국가주의	초국가주의
	10	민족주의	민족주의	민족주의

제3기	1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2	정체성	정체성	정체성
	3	한인	한인	한인
	4	이주	이주	이주
	5	민족	민족	민족
	6	문학	문학	문학
	7	조선족	조선족	조선족
	8	재일한인	재일한인	기억
	9	기억	기억	재일한인
	10	고려인	고려인	고려인

5.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다른 재일한인분야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등재와 등재후보지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디아스포라 관련 논문을 수집하여 발행 행태를 조사하고 이들 논문의 저자 키워드와 논문제목에서 추출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관련 주제의 지식지도를 도출하였다. 또한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주요 주제 영역을 구분하였고 발행시기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연구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디아스포라 연구는 2010년 이후 매년 100편 이상의 논문이 생산될 정도로 점차 연구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폭되고 있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다루는 학문 분야도 인문학, 사회과학, 복합학, 그리고 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접근하는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디아스포라 관련 연구의 지식 지도를 그려본 결과, ‘정체성’, ‘한인’, ‘이주’, ‘재일’, ‘민족’, ‘문학’, ‘문화’, ‘조선족’, 그리고 ‘초국가주의’ 등이 중앙성이 높은 주제 키워드로 나타나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재일한인의 주제가 차지하는 주요한 비중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디아스포라의 초기 연구에서는 덜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재일한인 주제가 제2기(2007~2012년)와 제3기(2013~2018년)에서는 4~5번째로 중요하게 다루어진 연구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주제 영역을 구분해 본 결과 ‘재일’은 ‘디아스포라’, ‘민족’, ‘정체성’, ‘문학’, ‘이주’와 동일한 클러스터에 구분되었고, 이 네트워크는 규모는 작으나 매우 밀도 높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다른 클러스터보다 주제 몰입 정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디아스포라 관련 연구는 신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클러스터F와

G를 포함하여 총 7개의 주제 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발행시기별 분석을 통해 디아스포라 연구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초기의 연구에서 관심이 높았던 ‘네트워크’, ‘민족적’, ‘우즈베키스탄’, ‘소셜’은 제2기와 제3기의 연구에서 중앙성이 높은 주제가 아니었고 제2기의 ‘초국가주의’, ‘문화’, ‘민족주의’는 최근인 제3기에서 중앙성이 높지 않았다. 반면 제3기 디아스포라 연구에서는 ‘조선족’, ‘기억’, ‘고려인’과 더불어 ‘이주’, ‘민족’의 중앙성이 향상되어 나타났다. ‘재일’의 경우에는 초기 디아스포라보다 제2기, 제3기 연구에서 중앙성이 높은 주제 키워드로 나타났다. 동시에 디아스포라에 대한 민족이나 문화와 같은 거시적인 접근보다 개인의 기억이나 트라우마와 같은 미시적인 접근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최근 중앙성이 향상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디아스포라 관련 연구에서 재일한인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가장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 영역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 될 것이라 본다. 다만 민족 정체성과 문화와 같은 일부 주제에서만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어 현시대의 문제로 확장하여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는 재일한인이 아닌 재외한인 디아스포라들에서 다루거나 신규 주제 키워드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클러스터F와 G에서 참조하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환기 외(2018)『재일디아스포라문학선집(5) 연구』소명출판
 서봉언·이채문(2014)「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본 한국의 디아스포라 연구동향」『디아스포라연구』제8권 제1호,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선봉규(2011)「근·현대 재일한인 디아스포라의 이주와 재영토화 연구 -오사카와 도쿄를 중심으로-」『한국동북아논총』제60권, 한국동북아학회
 소명선 외(2018)『재일조선인 미디어와 전후 문화담론』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신기영(2016)「디아스포라론과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안」『일본비평』제14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외교부(2017)『재외동포현황 2017』외교부
 윤인진(2004)『코리안 디아스포라』고려대학교 출판부
 이상봉(2010)「디아스포라와 로컬리티 연구 -재일코리안을 보는 새로운 시각」『한일민족문제연구』제18권, 한일민족문제학회
 임영언·허성태(2013)「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본 북한-총련-일본 관계 연구」『한국동북아논총』제66권, 한국동북아학회
 임채완 외(2012)『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화콘텐츠』북코리아
 장윤수(2010)『코리안 디아스포라와 문화 네트워크』북코리아
 재일본대한민국민단 홈페이지. <<http://www.mindan.org/kr/aboutus.php>>, [인용 2018. 8. 20]
 전형권(2007)「일본의 보수화와 재일한인의 국적문제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동학」『한국동북아논총』제43권, 한국동북아학회

- 정금희·김영지(2012)「초창기 재일한인 작품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성향 연구」『디아스포라연구』제6권 제1호,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 정영미·이경규(2018)「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한 재일한인분야 지식구조 분석」『일본근대학연구』제 59집, 한국일본근대학회
- 조현미 외(2012)『일본 가나가와 지역 재일한인의 생활사』책과 세계
- 하상일(2013)『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역사적 이해』소명출판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 <<https://www.kci.go.kr/>>, [인용 2018. 8. 30.]
- Cambridge Dictionary homepage. <<https://dictionary.cambridge.org/ko>>, [cited 2018. 8. 20]

논문투고일 : 2018년 10월 01일
심사개시일 : 2018년 10월 17일
1차 수정일 : 2018년 11월 09일
2차 수정일 : 2018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1월 19일

< 要 旨 >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다룬 재일한인분야 연구동향 분석

정영미·이경규

재일한인의 형성은 한국의 일제 식민지시대와 같은 특수한 역사적 사실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아스포라 관련 국내 학술 논문을 대상으로 기술통계 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을 통해 재일한인 디아스포라 연구동향과 지식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CI(Korea Citation Index)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디아스포라 관련 논문 1,367건의 서지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논문의 생산주어, 연구 분야, 발행기관 등은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관점의 재일한인분야의 연구동향 및 지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 논문의 저자 키워드를 추출하여 이들의 동시출현 정보를 사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분석도구는 SPSS v23, KrKwic, UCINET 6이다. 추가로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다룬 재일한인분야 최근 연구 특성과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발행시기별 분석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다룬 재일한인분야 연구동향 및 지식구조는 해당 분야 연구자들에게 기존 연구들에 대한 통찰적인 분석과 조망을 제공할 것이고 나아가 이 분야의 미래 연구 주제 발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f Korean-Japanese from Diaspora Perspective

Jung, Young-Mi ·Lee, Gyeong-Gyu

The study of Korean-Japanese is expected to be in a special situation in the study of diaspora in Korea because the formation process of Korean-Japanese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special historical facts such as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refore,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knowledge structures and research trends of the field of Korean-Japanese diaspora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keyword network analysis with Korean articles. For this purpose, 1,367 diaspora related papers in KCI (Korea Citation Index) database were collected. The article production, research field, publishing organization, and so on were identifi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method.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search trends and knowledge structure of Korean-Japanese diaspora in Korea, we extracted the author keywords of the collected articles and conducted keyword network analysis through the co-occurrence information of these. The analysis tools used in this study were SPSS v23, KrKwic, and UCINET 6. In addition, we analyzed the period of publication of the article in order to examine recent research characteristics and trends in the field of Korean-Japanese diaspora. The research trends and knowledge structures of Korean-Japanese diaspora field that are derived as a result of this study will provide insightful analysis and perspective on the existing studies to the researchers in the field and can help to find future research topics in this field.